중문의대~동교동간 확포장 설계노선 주민 반대

민원소지 없는 노선 선택해야 여론 형성

포천시가 오는 200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문의대~동교동간 확포장노선에 대한 주민반대가 극심해 노선의 대폭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일 동교3통 마을회관에서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마을주민들과 도로설계용역 실무자, 포천시와 시의회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밝혀졌다.

도로설계용역회사의 설명이 끝난 후 주민들의 의견을 묻자 이구동성으로 설계된 도면대로는 절대 길을 낼 수가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특히 동교3통 마을회관 앞에서 담배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할아버지는 "건물이라고는 이것 하나 밖에 없는 데 잘려나가게 생겼다"며 "시장은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또 중문의과대학앞에서 기존노선을 따르지 않고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에 편입된 농지 주인들은 농지가 두 동강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주민들의 벌떼와 같은 항의로 장내가 소란해지자 박윤국 포천시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장내를 정리하며 하나하나씩 주민여론을 수렴해 나갔다.

이 자리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오늘 설명회는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며 오늘 노선은 결정된 것이 아니며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교3통 주민들은 중문의과대학 앞에서 기존도로를 따라 직선으로 나가 마을회관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한편, 포천시는 지방도 391호 중문의과대학에서 동교3통에 이르는 길이 1.43km구간을 폭 13m로 확포장할 계획이며 오는 9월에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06년 9월에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바쁜 일손을 잠시 멈추고 도로확·포장 주민설명회 참석한 주민들이 설계노선에 강하게 반발하며 설명회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포천시 선단동사무소 희망 이 천사 (2004) 이웃사랑 운동 전개

'독거노인 생활도우미제' 시행으로 이웃사랑 실천

포천시 선단동사무소(동장 강병수)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04년도 특수 시책으로 생활도우미 제도인 '희망 이 천사(2004) 이웃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이를 위해 선단동 동사무소 직원과 통장협의회(회장 장경섭),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박학수), 새마을부녀협의회(회장 오은자) 등 4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독거노인별로 생활도우미를 지정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선단동사무소는 우선 각 기관 및 단체의 회비로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4개 기관 및 단체장과 요구르트 배달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자원봉사활동 참가인증서에 서명하고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안부전화 하기 ▷추석 및 설에 송편과 떡국 갖다드리기 ▷밑반찬 전달하기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이·미용협회 등 관련단체와 적극 협의해 이·미용 및 목욕봉사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선단동사무소에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개 기관, 단체의 임직원 및 회원 모두를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가입시키는 한편 개인별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해 자원봉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훈훈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천시 선단동의 이 같은 노력은, 지방자치행정 최일선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타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포천 폐광산 중금속 기준치 최고 16배

농산물 재배 토양오염기준치 6개 초과

포천시 일부 폐광산의 경우 주변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됐고 이중 일부는 기준치를 최고 16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수질보전팀은 포천시 관내 3곳의 폐광산 주변 1km 이내 토양에 대한 수은(Hg), 납(Pb) 등 7가지 중금속 농도를 조사한 결과 영중면 금주리 용석광산은 비소(As)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6mg/kg)보다 16배 높은 95.024mg/kg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농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토양오염 기준치를 6배 초과한 것으로 주변 토양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은의 경우도 농경지 기준치(4mg/kg)보다 2배 이상 높은 11.28mg/kg가 검출됐다.

영중면 성동리 영중광산은 구리(Cu)가 토양오염우려기준치(50mg/kg)보다 1.2배 가량 높은 62.35mg/kg으로 나타났다.

또 폐광산내 광미(광석 찌꺼기)의 중금속 농도는 영중광산이 구리(189.4mg/kg)와 수은(8.49mg/kg), 용석광산이 비소(160.48mg/kg)와 수은(77.24mg/kg)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미아방지를 위한 명찰달아주기 캠페인

산정호수 유원지에서 어린이 700명 대상

포천경찰서(서장 최원일)는 지난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포천시 영북면소재 산정호수 관광지에서 BBS 포천지회 및 각 읍·면·동 어머니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미아방지를 위한 어린이 명찰달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 날을 맞아 산정호수 관광지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미아가 발생 할 것에 대비해 실시됐다.

이날 포천경찰서는 어린이 약 700명에게 명찰을 달아주어 미아방지를 위한 사전활동을 했다.

또한 이곳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선도 캠페인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이날 최원일 서장은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이며 나라의 기둥"이라고 강조하고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며 올바른 길로 선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찰을 단 어린이들은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세련된 경찰관 및 교통싸이카와 기념촬영을 하면서 즐거운 어린이 날을 보내기도 했다.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어버이날 맞아 수용자 가족 만남의날 행사

의정부교도소, 고령 수용자 51명 가족 한자리에

의정부교도소(소장 李亮培)는 어버이 날을 맞아 5월 7일 대강당에서 60세 이상된 수용자 및 모범수용자 51명과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수용자들은 교도소에서 준비해준 카네이션을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주며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가족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같이 하면서 그동안 묻어두었던 가족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수용자 김 (45세, 징역 4년)씨는 노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못난 자신이 부끄럽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양배 의정부교도소장은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장소에서 가족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수용자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며 당부의 말로 가족들을 위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사건 || 사고

상표 도용해 자동차부품 수출

서울 도봉경찰서는 7일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3사의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자동차 부품을 해외에 수출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서모(38)씨 등 일당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구리시와 남양주시 작업장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납품 받아 자동차 3사의 등록 상표와 제품라벨을 임의로 붙여 러시아, 이라크 등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포천 등지의 몇몇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부품을 납품 받아 10억원대의 브레이크 패드 7만 세트를 제조, 7억2천만원 어치의 물품을 판매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폭행 조폭 6명 구속

8일 조직을 배신했다며 옛 동료를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23)씨 등 6명이 의정부경찰서에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4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A노래방 부근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박모(21)씨를 노래방으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다.

의정부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이들은 같은 조직원이었던 박씨의 신고로 동료 조직원이 검거된 것에 앙심을 품고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80대 노인 열차에 치여 숨져

6일 오후 6시 20분께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경원선 연천역 인근 건널목에서 김모(80. 연천군 전곡읍)씨가 의정부를 떠나 연천 신탄리로 향하던 2063호 통일호 열차에 치여 숨졌다. 김씨는 건널목을 건너다 연천역으로 진입하는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다. 경찰은 열차 기관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당직 경찰관 숨진 채 발견

지난 4일 오후 4시10분께 의정부 경찰서(서장 김덕기) 경무과 정보통신계 소속 김모(38세) 경장이 경찰서 3층 통신계 사무실 내 숙직실에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인 상모(45세) 경사에 따르면 "김 경장이 피곤해 잠을 든 것으로 알았는데 외근 뒤 오후에 사무실에 도착, 확인해 보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김 경장은 같은 부서 소속 경찰이 타 경찰서로 발령이 나자 3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대체 야간 당직을 한 뒤 변을 당했다.

4일 오전 같은 부서 소속 3명 경찰관들은 지구대 웜바이러스 치료와 민원실 근무 등으로 모두 외근 중에 있어 김 경장이 숨진 사실을 오후 늦게 발견했다

KBS 9시 뉴스에 방영된 프로광택사

'청소박사'

광택. 코팅, 실내크리닝
흠집제거, 수입차 환영

카페트, 침대, 쇼파
출장크리닝 전문

대표 한기창

무료전화 : 080-557-4445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84-16 TEL : 031)531-4448 HP : 017-208-44